

# 조배숙-안철수 '비례대표' 신경전

### 민평당 창당 이틀째 행보 조 "비례의원 의사 존중" 안, 출당 불허 입장 재확인

민주평화당(민평당)은 창당 이틀째를 맞은 7일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는 개혁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조배숙 신임 대표는 이날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후 각 당 대표를 잇따라 방문, 인사를 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조 대표는 장병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들이 흘리신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민주 민생 평화 개혁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조 대표는 고(故)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갈라선 '어제의 동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대화 도중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로 복귀해 참석할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이루고자 한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자 조 대표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예방했다. 분당 사태의 양극이 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남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조 대표는 가장 먼저 안 대표를 찾았다. 안 대표는 "여성 당 대표가 세 분(민중당·민평당·정의당)으로,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며 "민생과 국익 최우선이

라는 점에서 두 당의 공통점이 많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다당제를 지키자"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으로 믿겠다"며 "앞으로 서로 갈 길이 다르지만, 같이 출발했던 만큼 국회에서 민의를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공개 대화의 분위기는 싸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가 "그쪽(미래당)에 합류할 뜻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대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다"며 출당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았다. 추 대표는 "환영한다. 어제 훌륭한 연설 말씀처럼 (당을) 잘 이끌어달라"며 "차제에 여성 당 대표가 못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앞으로 협치의 중심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개혁과제를 위해 협치하는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며 "여성 3인 당 대표가 오찬이라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났다. 유 대표는 "협력할 것은 하고, 때로는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저의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조 대표는 "탄핵 국면에 같이 동참해서 탄핵이 이뤄졌고, 그 저변에 촛불 혁명이 있어 국민의 개혁 의지를 잘 아리라 믿는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평화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자"고 요청했고, 조 대표는 "정당 개혁과제에 대한 연대의 기회나 고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예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홍 대표의 개인 일정 때문에 추후 다시 면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대신 양당의 김성태, 장병완 원내대표가 만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 대통령 보고”

###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여론조사 거쳐 자문안 마련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가장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출범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순 개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요강과 조문이 모두 담겼다. 개헌특위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분부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순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형태를 빨리 안 뻗치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 3개 분과와 국민참여분부로 구성된 개헌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출범할 것”이라며 “특위는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마련 문제가 전문성이 필요해 각 분과에는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분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는 가운데, 위원은 정책위 위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청와대 인사는 배제된다. 국민참여분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작성한다. 개헌특위는 오는 13일 출범 직후 첫 전체 회의를 하고 각 분과위와 국민참여분부도 잇따라 가동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도 19일 개설된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설치

### 위원장에 윤호중... 이의신청처리위원장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은 7일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임명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후보자검증위 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이의신청처리위 위원장에는 인

재근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검증위원으로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현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유진희 변호사,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는 김해영 의원과 문병운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김소연씨가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 배신” vs “구태 정당” 호남 의원들 ‘설전’

### 민평당-통합신당 거친 비판... 분열 책임 떠넘기기

국민의당 분당이 호남 정치의 분열과 이전투구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평당 측에서는 국민의당에 잔류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잔류파 의원들은 민평당 호남 의원들에게 지역에 안주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양 측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여론을 잡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호남 정치권의 역량만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에 합류기로 한 국민의당 소속 호남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민평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분열의 책임을 민평당에 돌리며 ‘뒷발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안 대표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를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창당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역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해 만든 민평당은 무술년에 일어난 신(新) 쇄국정치이자 구태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며 “호남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왜소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민평당은 명분이 없다”며 “완전한 호남지역당으로, 호남 지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반통합파가) 기득권 양당체제의 회귀 분능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꼬아붙였다. 이처럼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민평당 박지영 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당 합류를

결정한 국민의당 ‘종립파’ 의원들을 겨냥해 “황상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민평당 측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당 내부적으로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 등 국민의당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에 대해 ‘무술 3적’, ‘매향노’, ‘보수로의 우회상장’이라는 감정 섞인 말까지 나오는 등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전면 대응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호남 의원들 간의 설전이 민평당은 물론 호남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 민심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손금주 “무소속으로 남겠다”

### 국민의당 탈당... 이용호 의원 거취 표명 ‘관심’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해 7일 탈당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른정당과 통합과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와 ‘종립파’로 분류됐던 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지역 민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깨끗한 정치의 소신을 지킬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당이 분열해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호남의 뜻을 받들지 못했기에 저는 어느 길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탈당해 무소속으로 광야에 남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나주·화순 시·군민만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겠다”면서 “더 큰 정치를 위해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23석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아직 거취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지역구 의원은 이용호 의원 1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실용음악학과	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자소로 36